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6. 12.(월) 11:00 < 6.13.(화) 조간 > 배포 2023. 6. 12.(월)

유럽연합(EU)과 상품교역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현안 논의

-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 점검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 통상법안 논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올해로 발효 12년 차를 맞았으며, 코로나-19, 세계적(글로벌)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측 교역·투자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으로, 지난해 한국의 석유제품·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며 양측 교역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6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교역(억 달러) : ('10, 발효 전(前)) 833 / ('11) 943 ('19) 989 ('20) 1,027 ('21) 1,295 **('22) 1,363**

양측은 매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품무역위에서는 탄소중립산업을 위해 양국이 도입·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은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역내 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올해 5. 2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을 위한 세부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국이 국내에서 기지불한 탄소 가격을 충분히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유럽연합(EU) 측이 관심을 두는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개편, 해상풍력 관련 법령·제도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규제, 역외보조금 규정 등 우리 측의 여타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문의하였고,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하반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전반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5660)
		담당자	사무관	정다연 (044-203-566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